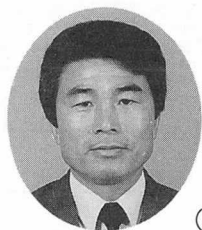


양돈 후계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윤 주 성
(전북도협회회장)

제 16주년을 맞이하는 「월간양돈」을 축하하며 양돈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오신 물론 양돈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찾아주는데 원천적인 교육을 해준 것에 대해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함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회원 상호간에 소식과 정보의 상호 교환 및 양돈농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양돈인의 토론의 장 및 교육에 주도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며 추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줄 분야로는 제 자신의 생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원 및 양돈인에게 백년대계를 위한 후계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어려운 역경속에서 성장해오며 지켜온 양돈산업을 훗날 무너뜨리는 모래위에 성을 쌓아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예를 들어서 “양돈 후계자교육의 현장을 찾아서”라는 제목 아래 전국 농업고등학교 축산과의 이모저모를 탐방하여 연구 분석하며, 전국대학 축산과와 전문대 축산분야 교육현장을 찾아서 심층 보도하고, 훗날 우리업의 대를 이어갈 인재를 키워가는 현실을 알리고 연구 분석하여 대책을 끌어내고, 국가에 건의하는데 실체가 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수입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데만 골몰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시키고 성공사례로 기업농에서 양성하고 있는 축산기능인 형태나 부자간에 하고 있는 전업농의 모범 양돈인을 찾아서 우수 사례로 격려해준다면, 협회 안에서도 후계자 교육을 신설 운영하는 전문적인 교육파트를 권하고 싶다. 16주년을 맞은 성숙된 월간양돈 실무를 담당할 가족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찬사를 보낸다.

정책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길...



하 영 국
(함양지부장)

월간양돈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양돈농가들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사양 기술들을 제공하고 사양가의 바람을 대변하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양돈인이란 월간양돈하면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구처럼 느껴지며 친근감이 들 것이다. 이는 양돈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많은 양돈인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양돈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좀더 다양하고 즐겨 읽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지침서가 되고 스승이 되기도 하며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돈 전문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면을 빌어 사양

가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책부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돈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양가의 소리를 전달해 주고 여론화 시켜야 한다. 그럴때 당국은 차기 연도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돈산업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현장을 뛰며 양돈인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양돈인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확고한 신념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돈인이 무너지면 전문지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돈인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되기 위하여는 월간양돈의 모든 종사자들은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때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돈업이 유망 업종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월간양돈이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항상 살아서 숨쉬는 생동감 있는 글이 다양하게 실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전문지,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지가 되는 양돈인의 지침서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월간양돈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내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월간양돈이 되길 기원한다.

새로운 기술습득과 신속한 정보입수가 필요



고 경철 과장
(축산물등급판정소)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양돈업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이끌어 줄 전문지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월간양돈 또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면적인 수입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돈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새로운 기술습득과 신속한 정보입수가 필요하다. 양돈전문지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느낌을 주는 양돈전문지가 되어 한발 앞선 새로운 정보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다 다양하게 게재한다면 양돈인들은 정보입수 및 사양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현재 양돈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생산비 절감이다. 생산비 절감은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제는 양돈인들도 생산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생산에서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수준높은 정보제공이 보다 좋은 전문지를 만들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론적 사양관리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장감있는 체험과 기술을 실어야 한다.

수입개방과 국제경쟁 시대를 살아갈 양돈인들을 위한 양돈전문지로서 우리나라 양돈분야 발전에 앞장서 온 월간양돈의 창간 16주년을 축하하며, 월간양돈은 양돈인의 기술 및 정보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양돈업의 미래를 이끌어 줄 전문지라는 자부심과 각오로 부단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시기적절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길

왕 영 진 부장
(베링거 인겔하임)

UR 및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여파와 그 영향에 대해 핏대 올리던 목소리들도 이제는 지쳤는지 한 풀 꺾인감도 없지 않다.

전국적인 지자체 선거의 열기와 분위기로 그러한 것들은 다 뒤로 제껴지고 언론 및 저널 등 모두 한통속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의 축산, 특히 양돈분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제길을 지켜온 월간양돈이 어느덧 16주년을 맞게 되었다. 그 동안 대 양축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질병 및 사양관리 정보의 제공과 유익한 기

타 자료 및 정보제공에 있어 양축가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월간지 중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월간 양돈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알량한 노파심에 몇가지 당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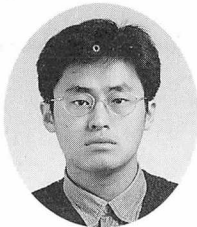
첫째, 필드에서 문제되는 일이 간혹 제 시기에 누락되며 다소 늦은 감이 있었던 기억을 되살리며, 그때 그때 상황에 필요한, 그야말로 시기적절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었으면 한다.

둘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축산환경에 대하여 다룬 심층기획 기사의 취급이 있었으면 한다.

셋째, 어느 한 업체의 광고에 치중하지 않는, 게재를 원하는 업체의 균형있는 광고 계획이 요구된다.

이상 위의 세가지를 감히 제안하며 아울러 축산분야의 한 일원으로서 월간양돈이 시종일관 제자리를 지키며 굳건하고 건강한 미래지향적 축산잡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주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동종업계 동반자로서 월간양돈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독자와 함께 하는 월간양돈이 되길...



정 정 태
(본지 독자)

그동안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월간양돈을 펴낸 양돈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월간양돈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돈인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축산의 현실을 우려하며 월간양돈이 앞으로 양

돈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자와 함께하는 월간양돈이 되길 바란다.

어떤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독자가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면 독자투고에서 투고를 통해 의문나는 점을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독자투고에서 각 양돈농가에서 당면한 문제를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을 포함했으면 한다. 육종, 질병, 사양관리, 시설, 폐수처리 등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것 특히, 우리 양돈인들은 순수한 사람이 많아서 민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민원이 발생되면 관에 가서 사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많은 사례발표를 통해 법

에 대해 친숙해지고, 알려진다면 기죽지 않고 당당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내용이 수박 겉핥기 식이 아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월간양돈에서 기획취재로 우리나라 상위급 농장을 구석구석 취재해 사진과 함께 우리

일반 사양가들이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위급 양돈농가에서 앞서가는 농가를 따라 할 수 있다면 우리 양돈업은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 설 수 있지 않을까?

이상으로 나의 바램을 말하며, 그동안 애써 준 월간양돈 편집요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월간양돈을 꾸준히 애독할 것을 약속 드린다.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



이 호 원 양돈 PM
(대한제당(주)무지개사료)

월간양돈의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의 양돈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양돈의 위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양돈인이자 애독자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인이 드리고 싶은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의 양돈업이 아주 어려해 전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니 또는 개방화의 바람으로 국제화되어야 한다니 등의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왔으나 절대 다수의 양돈인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막연한 농가가 한 둘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농가를 위해 지금까지도 월간양돈이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도 더욱 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즉, 매우 이론적이면서도 복잡한 내용의 기사는 농장에 적용을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읽기도 꺼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장에서는 현

실적으로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진다.

양돈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는 사료와 급여관리(Feeds and feeding), 돼지(Breeds and breeding), 환경(housing and climate control) 그리고 사양관리(Man and management)라고 생각된다. 이 네가지 요소가 어느 하나 균형을 잃지 않고 운영되어 질때 우리의 양돈업 수준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양돈장은 대부분 자신이 생산한 자돈을 출하시까지 육성시키는 일관 생산 농장이 대다수이다. 그래서 자돈과 비육돈의 생산이 분리된 유럽의 양돈선진국에 비해 자돈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와같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널리 알리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약점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양돈업도 마케팅 개념이 도입되고 많은 사양가가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장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농장의 시급한 선결사항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월간양돈은 우리나라의 대다수 양돈인이 읽고 있고 사육농가에 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대중매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오랜세월의 전통을 살려 더욱 필요한 잡지로 거듭나길 기원한다.